

일중 경제 무역 센터의 추계 회원 간담회에서의 강연

- 최근의 중국 정세 <3/3>

◎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시키기 시작

넷째는 2011년부터 새로운 ‘제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2011년 3월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5년 동안에 소득을 배로 올린다는 계획이 결정될 것이다. 일본의 이케다 내각이 1960년대에 추진한 소득 배증 계획의 중국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수를 확대시키려는 중국 정부는 여러 수단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해 보면 노동 쟁의에는 중국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계되어 있다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이 헛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 타이밍이나 일본 기업이 쟁의의 중심이 되었다는 등의 점에서도 그런 소문이 믿을 만하지 않나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을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의 저임금 전략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경이 어찌되었건 이번 임금 인상 스트라이크는 길게 보면 중국의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외자계(外資系)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가 증가해 큰일이지만 모든 일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임금 인상 소동이 일어난 배경으로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실시해 온 무리한 외자 우대 정책이 누적되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계속 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저임금 정책을 유지해 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외자 기업은 많은 혜택 다시 말해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법인세를 경감하는 등의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아왔다. 중국도 이러한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자기 나라 노동자에 대한 케어가 소홀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외자를 우대하다 보니 반대로 자기 나라 노동자를 경시한 것이 되어버렸다.

최근에야 겨우 최저 임금 제도가 검토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나왔다. 2008년 1월에 노동 계약법을 공포하고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리먼 쇼크로 인하여 이런 흐름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시키고자 전략적으로 크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안화 화폐 가치를 두 가지 이유로 올려

다음은 위안화 환율 문제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미묘한 불씨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가을에 외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에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기재할 것인가가 검토되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에 큰 관세가 부과되어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미국은 미국 채권(美國 債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는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려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도 미국을 너무 분노케 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아래와 같이 정책을 변경시켜 오고 있다.

중국은 2005년 7월에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2% 올리면서 미(美) 달러 페그제(dollar-peg制 : 자국 통화의 환율을 미국 달러와 연동시켜 일정하게 지키는 방법)를 변경하여 관리 변동 시세제(管理 變動 時勢制)로 바꾸었다.

그 후로 2008년 7월까지 3년간에 20% 정도 위안화 환율 상승으로 유도되었다. 그런데 세계 동시 불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출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1 달러 = 6.82 위안 정도로 동결되었다. 관리 변동 시세제의 관리 부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이와 같은 중국의 외환 관리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상당(相當)하다고 주장하며 크게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2010년 6월에 위안화 탄력화 방침을 제시하고,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안화는 1.7%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있어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 참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는 짐작할 수가 없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맞추기 위하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인민 위안화의 가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세계의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구매력이 강해지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이유는 중국에는 13억 인구 중 7억 8천만 명이 노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60% 이상이 수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민 위안화 가치가 상승되면 수출 기업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실업자나 기업 도산이 생긴다. 그러나 도산하는 기업은 대체로 노동 집약형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형 수출 기업은 다소 영향을 받아도 견딜 수 있다.

◎ 위안화가 높아지는데 따라 노동 집약형 산업은 도태되어

사실은 중국 정부가 노동 집약형 산업을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켜 도태(淘汰)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미 광둥성(廣東省)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광둥성에서는 등룡환조(騰籠換鳥 : 새장의 새를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여기서 룡(籠 : 새장)은 마켓이고 새는 기업의 의미이다. 새장 속을 노동 집약형 기업에서 선진 산업형 기업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실험 국가이다. 국토가 넓고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일본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법률을 공포하는 방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잠정법(暫定法) 공포(公布)가 바로 그렇다. 어떤 법률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잠정법으로 임시로 공포하고 있다.

이미 광둥성에서 그런 실험이 시작되었다는 조짐이 있는데 실험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넓혀나갈 것이다. 모델 지구(model 地區)를 만들고 그곳에서 성공하는 체험을 옆으로 넓혀 나가게 된다. 목표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구조 특성을 가진 나라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면에서도 정치 특구에서 실험하고 있다. 광둥성에서는 일부에서 선거 제도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광둥은 베이징(北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실패하여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도 주하이(珠海)나 선전(深圳)에 경제 특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바로 경제 특구가 실험장이었다. 취약하고 노동 집약적인 수출 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은 중국에서 산업 구조 전환을 계획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산업 구조 전환과 앞에서 말한 성장 패턴 전환이라는 2개의 큰 전환이 추진되려 하고 있다. 대단히 어려운 실험인데 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마 특구를 설립하는 것도 이러한 전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경마는 도박(gamble)의 일종이다. 당연하지만 도박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경마의 경우 특정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도 특별법을 만들어 경마를 인가(認可)하면 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히다카(日高)에 있는 서러브레드(Thoroughbred)라는 영국산 경마용 우량 종마(英國産 競馬用 優良 種馬)가 중국으로 팔려갔다. 경마는 가장 큰 내수 확대 정책으로 알려져 있고 사행심(射倖心 : 요행을 노리는 마음)에서도 중국인의 국민성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서러브레드도 잘 팔렸고, 일본 경마 운영 시스템도 팔리고 또한 중국 내수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러한 경마 특구 설립도 일 · 중(日 · 中) 쌍방에 좋은 일만 있는 ‘아이디어’는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